# '세번째 전주야행', 여름밤을 시원하게

조통달 · 김영자 · 김수연 등 최정상 판소리 명창 무대 마련 한옥마을 방문객들 이목 끌어 내달 26일 네번째 야행 개최

전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다양한 문화재와 대명창들이 빚어낸 전주문화재야행이 지난 22일 경기전,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렸다.

어진 속에 잠들어있던 태조 이성계가 역사의 문을 열고 경기전 밖으로 나오며 방문객을 맞이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, 또다른 세 번째의 문이 열린 이번 야행은 대한민국 최고 판소리 명창들의 무대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.

이날 경기전 광장에 미련된 메인무대에는 조통달 명창(익산)과 김영자 명창(대구), 김수연 명창(군산), 왕기석 명창(전주), 송재영 명창(전주)을 비롯해 북 반주를 얹혀줄 고수에 김청만(목포), 박종훈(순창) 등이 올라 거장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소리 고장 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.

먼저 소리신동 유태평양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조통달 명창은 수궁가 중 범피중 류 대목을, 시도무형문화재 심청가 전수조 교인 송재영 명창은 흥부가 중 첫째박 타 는 대목 을 들려줬다. 이어 대한민국에서



전주문화재야행이 지난 22일 경기전,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렸다. 이날 야행은 국내 최고 판소리 명창들의 무대가 마련됐다.

목 성음이 가장 좋다고 정평이 나있는 김 수연 명창이 춘향가 중 이별가를, 왕기석 명창이 심청가 중 젖동냥 대목을, 김영자 명창이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각각 선보였다.

김경미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 총감독은 "이번 문화재야행은 조선왕조본향으로서 의 전주이미지브랜드를 적용한 유형문화 재 활용이라는 2017야행의 컨셉트의 지속 성을 담고 있음은 물론 무형문화도시 전

주로서의 이미지 특성화에 포커스를 맞췄 다"고 말했다.

한편 2017 전주문화재야행은 오는 8월 26 과 9월 16일 등 두 차례 더 펼쳐질 예정이 다. /정해운 기자

### ▶▶ 공연 & 전시 ◀◀

전통문화전당 '여름방학 체험교실' 참가자 모집

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꾸린다.

일음료, 약밥&맥적 만들기 체험을 갖는다.

'홍') 등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.

정 · 약과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.

한국전통문화전당(원장 오태수)은 오는 8월 2~22일 전주 시민과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체험

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교

실, 한지 여름나기, 전통문화 큰나무 키움교실 등 3개 분야 다. 한식창의센터와 한지산업지원센터, 전당 입주 공방 7곳

3~17일까지 전당 3층 시루방(조리체험실)에서 열리는 '부

모와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교실 은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 까지 3회 진행된다. 부모님과 함께 2인 1조로 운영되는 요리

교실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착순으로 30개 팀을 모집한다. 한입 바삭바삭 피자&피클,찹쌀부꾸미&제철과

2~16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'한지 여름나기'

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. 한지뜨기, 한지부채&한지

무 키움교실'은 손멋글씨(깜장글씨) ,한지공예 I (금홍공예), 한지공예 II (예담공예), 손바느질(욱샘작업실), 목공예(바오

크라퍼), 칠보공예(바람소리 조형연구소), 한과(전주한과

이와 함께 각각의 공방에서는 사각 한지 등 민들기를 비롯 해, 한지인형, 원형 목걸이, 매듭인형, 핸드폰 가방, 원목시계

와 미니 정리대, 머그컵과 석고방향 액자, 찹쌀 유과·강

참가신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 (www.jeonju.go.kr) 공연·행사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

메일(eszrdx28@hanmail.net)이나 팩스(063-283-1201)로 제출하

/정해은 기자

제기 만들기 등 한지 관련 다양한 체험을 마련한다. 또한 전당 입주공방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'전통문화 큰나

## 김효영 생황 콘서트, 26일 군산예술전당서

관악 국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이 가능한 악기! 천상의 악기라 불리우는 생황 콘서 트가 7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7시 30분에 하우스 콘서트로 군산예술의전당 무 대에 오른다.

면 된다.

생황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에 사용된 대표적인 아악기로 둥근 박통에 17개의 죽관을 꽂고 취구에 입을 대고 불며 한국악기

중 유일하게 2개 이상의 음정을 동시에 낼 수 있는 화음악기로 알려져 있다.

무대에 오르는 김효영 연주자는 국립국악고와 추계예대를 졸업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생황의 아름다움을 알리 있는 젊은 예술가로 인정 받고 있다.

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곡들로 꾸며지며 피아노 반주와 어울려 우리 귀에 익은 라베르 탱고에서 부터 생황 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.

한편 하우스콘서트는 공연자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마루나 가까운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공연자와 관객 이 경계가 없는 무대 위 한 공간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 다는 특수성 때문에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다.

이외에도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야 외광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썸머페스티벌과 이은결의 매직&일투션을 준비해 여름방학동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했다. /군산=장 현 기자

# 공연문화의 새로운 요람 '문 활짝'

### 정읍 연지아트홀 개관식… 축하공연 · 음악 콘서트 등 성황리 마쳐

정읍시 중앙로 옛 군청 자리에 들어선 연지아트홀 개관식이 지난 21일 현지에서 있었다.

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정읍 시의회의장, 지역 내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.

연지아트홀은 대지 6248㎡, 연면적 2017㎡, 지하 1층, 지상 2층이다. 무대 면적은 270㎡와 객석 203석으로, 클래식과 연극, 합창,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소규모 공연장이다.

연지아트홀 개관에 따라 정읍은 각종 소 공연과 전시 등에 최적화된 주민 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.

시는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 있는 초청공연과 함께 시립예술단과 지역예술 단체 참여 공연과 대관 공연도 병행 운영 할 방침이다.

김생기 시장은 기념식에서 "연지아트홀 건립으로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품 격 있고 수준 높은 정읍의 문화예술 공연 과 외부 초청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 다"고 밝혔다.

이어 "이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할수 있게 됐다"며 "특히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한편 개관식 당일에는 축하공연도 이어 졌다. 40인조 아르스 오케스트라와 소프라 노 성준, 팝페라 가수 주니최의 협연으로 클래식에서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채 로운 공연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.

22일에는 피아니스트 이미연 독주회와 23일 라스 앙상블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 에 미쳤으며, 오는 26일 창작연극 순정이 블루스 가 공연된다.

또 27일 시립합창단의 특별공연, 29일에는 넌 특별하단다 뮤지컬 공연이 펼쳐지고, 공연기간 연지아트홀 전시실에서는 개관을 기념하는 공예작품 기회전시도 이어지다. /정읍=김대환 기자



## 한옥마을 상설공연단, 문화 소외계층 '객석 나눔'진행

전주문화재단(대표이사 정정숙)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'객석 나눔'을 진행하고 있다.

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특별 이벤트 로 열리는 객석 나눔은 지역이동센터, 사 회복지기관 및 시설, 요양원 등 문화소외 계층에게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.

이를 위해 재단 상설공연단은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으로 선보이고 있는 전 주마당창극 전하맹인이 눈을 뜬다 와 한 옥마을 놀이패 '놀부가 떴다!' 공연의 객 석 10%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제공 한다.

천하맹인이 눈을 뜬다'는 10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8시 전주한벽문화관혼례마당에서 펼쳐진다. 패키지로 진행되는 전통문화체험은 오후 4시부터, 잔치음식체험은 오후 6시30분부터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.

또 '놀부가 떴다!'는 9월 15일까지 매주 목·금요일 저녁8시 전주소리문화관 아외 마당에서 만날 수 있다.

/정해은 기자

